

## 제11장 죽음 앞의 인간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2

### 다섯 번째 반응, 삶의 마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다섯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 과정이다. 죽기 전에 인간관계상 갈등이 있다면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잘 마무리하는 일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 대부분의 경우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닌 듯이, 혹은 불행한 죽음을 원하기라도 하는 양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죽어간다. 그러나 죽음은 삶을 가장 절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우리는 여간한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삶의 정리를 쉽게 해낼 수가 없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다.

그는 임종 12일 전부터 점점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음식을 삼키지 못하였고, 복수까지 차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신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 항상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종 전날 “하늘나라 가실 준비는 다 되셨어요?” 하고 내가 물으니,

“신부님,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쯤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정리 안 된 게 남았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

“신부님 저 오늘 하늘나라에 갈 것 같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준비가 되셨어요?”

“네, 준비되었어요. 신부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당신 손도 이리 주고” 하면서 직접 아내의 손을 끌어다 포개어 놓았습니다.

“신부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꽃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보답할 게 그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신부님, 제 아내도 이곳에서 일주일여 한 번이라도 봉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으세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내의 손을 꼬옥 잡고,

“여보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고 당신과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투병생활 하는 동안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웠고……. 처음으로 불러본다. 여보! 사랑해.”

눈에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를 보면서 한 손으로 머리맡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아내에게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예쁜 시계였습니다.

“당신 생일선물로 준비했어. 이번 달에 당신 생일 있는데 못 챙겨주고 갈 것 같아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다냈어. 당신이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거잖아! 시계 예쁘지? 할머니 될 때까지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해?”

눈물을 펄펄 흘리는 아내에게 그는 직접 시계를 꺼내어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입맞춤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의 등을 끌어안고 긴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 행복했었음을 고백했고, 남편은 죽어서도 아내를 사랑하겠노라고 속삭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이 단계는 환자가 주위 사람과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시기이다. 임종자가 주위 사람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품고 있는 해결 못한 문제를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에 적합한 시기이다. 예를 들어 유언을 쓰도록 권유한다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적 갈등이라든가 오해가 있다면 화해하도록 이끈다든가, 또는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에 적합한 시점이다. 물론 모든 임종자가 이 시기에 인생을 충분히 되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평화로운 죽음을 맞게 된다.

## 여섯 번째 반응, 수용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누구나 슬퍼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이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죽음에 임해 슬픔을 표출하는 것도 임박한 죽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에 따라 납작 엎드렸다가 곧바로 일어서 자세를 바로잡는 잠초처럼, 임종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정적 흔들림을 서서히 추스르고 지금 임박한 죽음을 차분히 직시해 수용하게 된다. 그제서야 그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앞의 다섯 가지 반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 즉 죽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인생의 진리에 순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이 단계에 와서도 죽음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불행한 죽음을 맞을 뿐이다.

죽음이라는 상황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위대한 도가 사상가인 노자와 장자의 철학에 무위(無爲)라는 용어가 있다. ‘무위’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무위는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 행동한다는 의미, 즉 수동적 적극성의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죽음을 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위이다. 죽음에 일반적으로 끌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무언가 희망도 잃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영어에도 ‘Renunciation’이란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체념, 포기’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치다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탁 놓이지 않았는가.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과정이나 죽은 이후에도 결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이 남긴 침전물이 우리 존재 깊숙이 박혀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수용해 순응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죽음을 수용하는 시점에서부터 죽음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죽음에 순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혼의 치유는 시작된다. 아니 이미 치유되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해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죽음이 어떻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효대사도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도로써 생사를 벗어나 일체에 걸림이 없는 자유인(一道出生死, 一切無碍人)”이 되라고.

유방암 말기환자 옥설희 씨(40세)는 대학 교수였다. 의료진은 먹는 항암제를 이용해서라도 더 치료를 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호스피스 시설을 찾은 경우였다. 호스피스 관계자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아한 기품이 느껴졌다. 유방암을 발견해 수술을 한 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항암치료를 성실하게 받았지만, 그 후 암이 재발하고부터는 약물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만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담당 의사와 암센터 수간호사도 항암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생명연장은 가능하다고 보았고, 남편도 한 번 더 약물치료를 해보고자 했지만, 그녀가 거부했다. 호스피스 관계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7, 8년 동안 성심껏 도와주는 사람이라 믿고 맡길 만하고 시어머니도 계세요. 남편이 지금 42살인데 어중간한 나이에 일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일 치르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서 돌보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돌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 모습을 오래 보게 되니까 아이들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모색하던 끝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옥설희 씨의 아이들은 5살, 9살짜리 사내아이들이다. 큰아들은 엄마가 주로 키워서 유대관계가 있으나, 작은아들은 두 돌도 되기 전에 엄마가 병이 나서 할머니가 데리고 자면서 키워더니 엄마와

는 조금 서먹하다고 했다. 입원하기 이틀 전에도 숨이 차고 몹시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었더니, 작은아이가 엄마 방에 들어오려다가 무서운 듯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어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남기게 될 것 같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중략)

입막한 죽음에 순응하고 있는 그녀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도 쓰고 묘지와 장례식에 쓸 사진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아내의 죽음이 기정사실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젠 어찌될지 몰라 출근도 못해요. 집사람이 저보고 운다고 가라고 하면 차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올라가곤 해요. 어젯밤에도 히터 틀어놓고 차 안에서 잤어요.”

임종하기 이틀 전에 옥설희 씨는 친지들을 다 오라고 했다. 침대 주위에 둘러선 친지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임종하는 날에는 웨딩드레스를 가져오라고 해서 갈아입었다. 죽은 이후 관에 들어가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 서 있는 새 신부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간병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띤 채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거부하거나 분노에 빠져 이와 같은 수용의 단계에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할 수 없는 죽음임에도 그것에 대한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맞이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로 어떤 임종자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저항을 멈추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당사자가 끝내 죽음에 순응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가족 역시 힘들어진다.

임종자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경우,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차분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여유도 생기게 된다.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더 이상 부정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는 단계로 들어간다. 고통이 지나가고 몸부림이 끝나가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의 시간’ 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임종자가 일종의 수용과 평안의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그의 관심 세계는 한층 좁아진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객을 달가워하지도 않으며, 사람이 찾아와도 대화할 기분이 나지 않는 때가 많다.

이 무렵에는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보다는 표정이나 몸짓 등 무언의 대화로 바뀐다. 병실에 들어와 앉으려는 신호도 눈짓이나 손짓으로 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손을 꼬옥 잡으면서 잠자코 곁에 있어 달라는 신호를 하기도 한다. 임종자 앞에서 침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뜻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고 최후의 순간까지 곁에 있겠다는 믿음을 전해주는 사랑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죽어가는 사람의 아홉 가지 반응 가운데 처음 다섯 가지 반응과 달리, 여섯 번째 반응 '수용' 에서부터는 크게 차이가 난다. 처음 다섯 가지 반응과 마지막 네 가지 반응의 분기점이 바로 당사자가 임박한 죽음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도 그것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거나, 죽음을 두려워만 하거나, 자기가 왜 죽어야만 하느냐며 화를 내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슬픔에만 젖어 있다면, 그는 결코 죽음을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임종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은 삶 역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생전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상상해볼 수 있다.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줄 아는 사람은 삶 역시 가치 있게 보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에 순응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에 죽음준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서 죽음을 한 번도 사려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큰 이유라고 본다.

## 일곱 번째 반응, 희망

인생길이 너무 막막하고 허무하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의 인생 여행은 어느 틈엔가 목적을 잃은 것이다. 그런 삶은 지루하고 무의미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허무한 종결에 불과하다면 죽음준비도 아무런 의미 없는 헛일이 되고 만다. 하지만 죽음에 의미가 있다면, 다시 말해 죽음 저편에 여행의 본래 목적지가 존재한다면, 현재의 고난에 찬 인생길도 어떤 의미를 얻게 된다.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원한 생명' 이란 미래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후에 계속되는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죽음이 끝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희망의 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신세계로의 초대이며, 하느님의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크리스토퍼스도 하느님 안에서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옷을 벗는 것이다.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죽음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벗어놓은 후 우리는 보다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러기에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은 “죽음은 가장 큰 선물” 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죽음이 하느님과의 일치와 친교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은 곧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하게 죽습니다. 최후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영향력이 커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6:20)라는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가난 안에는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두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복입니다.

종교철학자인 헬무트 티리케는 “죽음이란 인간이 신이 아닌 존재임을 명심하라는 하느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 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곧 인간이 자신의 죽음(가난함)을 인식할 때, 더 겸손해지고 보다 낮은 곳에 자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태도는 곧 세속적인 이익에만 골몰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비천하고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낳으며, 결국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속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 이렇듯 죽음의 필연성과 죽음의 현실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의 태도인지도 이해할 수 있다. 맹목적이고 일회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래부터 우리는 가난한 존재임을 의식함으로써, 더 이상 가치없는 세속일을 좇지 않고 가치 있는 것만을 찾으며, 모든 거짓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떠나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내용이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확실히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죽으면 모든 게 끝임을 증명하는 것도 역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안목으로 구성해낸 지식체계이고,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죽음의 현상은 과학적 증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죽음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이다. 죽음 이후를 모두가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논증이나 설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끼리를 직접 만져본 사람과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논쟁을 벌이면 만진 적이 없는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죽음이 끝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내 강의를 듣는 어느 대학생은 리포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다. “중학생 때 친구가 매일같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하더니 어느 날 정말 위암으로 죽었다.”

죽음이든 삶이든 모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죽게 마련이다. 반대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해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면서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밝은 희망을 안고서 죽게 된다. 그렇다면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안고 죽는 것과 어두운 표정으로 절망하면서 죽는 것 중 어떤 것이 보다 인간적인 것이겠는가. 죽음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끝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삶을 밝게 사는 것과 어둡게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희망을 지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 여덟 번째 반응, 마음의 여유와 웃음

죽어가는 사람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은 생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마음의 여유와 웃음으로 맞이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강하여, 죽음에 임박해서도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지닌 채 적극적으로 죽음에 임한다. 이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역경에 처했을 때도 정신적 충격을 덜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확실히 엿보듯, 평생 한두 번에 불과한 어떤 희열의 순간보다는 일상의 작은 만족감이나 마음의 여유가 훨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충실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두려울 게 어디 있겠는가. 마음의 여유, 평정심은 죽음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마저도 향상시킨다.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마음의 여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 동양철학에 ‘허(虛)’, 즉 ‘마음을 비운다’ 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삶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급급하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헤아려보지만, 제대로 수판알을 튕기지도 못한다. 그런 메마른 지식, 얕은 지혜로는 죽음의 신비를 벗겨낼 수 없다.

평온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뛰어난 인물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아름다운 인생풍경’ 을 그리는 박정희 할머니(83세)는 예순의 나이에 수채화가로 화단에 데뷔해 인천 화평동에 ‘평안 수채화의 집’ 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가르쳤다. 할머니는 아팠다가도 그림만 그리면 싹 낫는다며 요즘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듯 날마다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할머니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랑인 듯했다. 30년 넘게 운영한 화실에는 붕어빵 만드는 아주머니, 공장 노동자, 평범한 주부, 학생 등 적잖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지위 고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화실에서는 모두 평등한 동호인이었다. 거기에선 좋은 웃도, 윤기 있는 얼굴도,

세상의 값비싼 것도 빛이 나지 않는다. 소박함, 진실됨, 따뜻함만이 어울린다.

할머니는 재능이 많아 다섯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춤, 그림, 글, 요리, 바느질 모두 전문가 뺄치게 해내면서 팔방미인으로 살아왔다.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활기는 여전하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은 '적당히 괜찮다' 고 말한다. 남편 유영호 박사는 인천에서 이름이 난 양심적인 내과 의사였다. 돈 버는 일보다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고쳐줄 때도 많았다. 할머니는 그를 가리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낙인찍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수채화가인 딸딸 유명애 씨는 할머니의 그림선생이자 같은 길을 가는 동호인이다. "우리 어머니는 인생을 연극하듯 즐겁게 사신 분이다. 전혀 포기가 안 되는 분이다.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거나 자신을 들볶기는커녕 모든 상황을 즐겼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활력을 지니고서 삶을 사신 분이다." 할머니는 사위가 환갑을 맞았을 때, 30년 전 딸이 사위를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적은 기록을 엮어 선물하기도 했다. 할머니가 남긴 기록은 집안의 가보였다. 자녀의 이름을 딴 육아일기는 딸들의 혼수품 1호였다.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는 지금까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책이다.

"죽음이 얼마나 준엄한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 간호사 부르고 의사 부르고 해야 하는가. 저이도 병원 가서 호흡기 쫓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더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머지않아 떠날 남편에 대한 아쉬움도, 갈수록 사그라져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안타까움도 마음에 자리하지는 않는 듯했다. 아버지 박두성 선생도 열이 펄펄 끓고 맥박이 1분에 200번이나 뛰는데도 손님이 찾아오면 "아, 괜찮습니다" 말하면서 여유 있게 응대를 했다. 할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깨끗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고귀한 가르침을 주고 떠났다.

병원 문을 닫고 작년에 몸져누운 할아버지는 약한 치매가 온데다가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이젠 위기를 넘겨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할머니에 비해 며칠 내내 잠만 자고 있는 할아버지의 건강은 다시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남편에게도, 또한 자신에게도 죽음은 머지않아 찾아오겠지만, 정작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림도 더 그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걱정이야. 인간의 삶이란 적당히 시들어가는 것이다. 남편과 내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잡아놔야겠다. 저 양반이 가는 것도 구경거리이고, 나의 죽음도 구경거리이다. 나는 즐겁게 살았다. 하느님이 언제 올지 몰으신다면, '만사 오케이! 지금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겠다."

할머니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한 적이 없고, 꿈을 잃은 적이 없고, 기쁨을 포기한 적이 없다. 죽음에 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정이다. 할머니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유 있게 웃지 않을까. 삶을 사랑하고 즐겼던 박정희 할머니,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죽음마저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기록할지 기다려진다.

## 1. 달관 - 현자들의 죽음

사는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행복과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고 살았던 현자들의 삶 속엔 '죽음마저도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도저(到底)한 관조와 달관의 인생철학이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 장자, 스코트 니어링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범을 볼 수 있다.

♣ 소크라테스의 여유, “나는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세 중심의 인생관을 통해 죽음을 무시하는 것과 내세를 중심에 두고 현세의 삶을 경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양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극단적인 두 가지 해법을 모두 거부한다. 그는 내세 또는 현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생사관을 제시해 현세의 삶을 절대시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변명』을 통해 나타난 그의 죽음관은 서양철학의 창시자답게 대단히 철학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막상 죽음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죽어간다. 그러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때까지 살아왔던 철학적인 삶을 포기하고 삶을 구걸하는 치욕을 당하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 세속적 가치가 아닌 진리나 지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을 말한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불완전한 영혼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영혼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다. ‘철학’이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무지를 자각하게 하여, 스스로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듯이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자신이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인 것처럼 두려워한다. 이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비난받을 만하다.

죽음은 그가 평생 탐구해온 정의, 덕, 선, 아름다움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남김없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음을 절망 혹은 두려움 자체라고 간주한다. 죽음이 축복인지 절망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을 느껴 절망한다는 것은 무지를 자각하는 철학적 삶의 포기를 뜻한다. 그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에 임해 담담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해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주 인용했던 그리스 텔포이 신전의 경구 “너 자신을 알라” 는 인간의 앎이 보잘 것 없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라는 뜻이다.

“지금 죽어서 온갖 수고로움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최선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여행을 떠났다. 삶의 길이 가시밭길이었기에 죽음은 그에게 오히려 쉽고도 편한 길이었다. 철학적 삶을 살다가 그로 인해 죽음의 길로 접어든 그에게 죽음은 절망이기는커녕 고난의 가시밭길로부터 벗어나는 기회였다.

사람들이 삶에 애착을 갖고 죽음을 한사코 피하려 하는 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영혼은 삶에만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절망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죽음은 두려운 현상도, 절망 그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끝도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죽음은 다만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 ♣ 장자의 여유, 죽음 앞에서 마음을 비우다

장자(莊子) 사상의 핵심은 ‘마음 비우기’ 이다. 마음을 비운 그가 통찰한 삶과 죽음의 실상은 과연 어떠 할까. 『장자』 「지락(至樂)」 편에 흥미로운 일화가 실려 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자 혜사가 문상을 갔더니, 장자는 두 다리를 뺀고 술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사가 힐난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같이 키우다가 늙어서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곡을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술동이를 두드리면서까지 노래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에 장자는 답했다. “아내가 죽었을 당시에야 나라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 시원을 돌이켜보건대 본래 삶이란 없었다. 단지 삶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무런 형체도 없었지.…… 지금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서 아내는 죽게 되었으니, 이는 춘추동 서계절의 운행과 마찬가지로지네.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커다란 방에 편안히 누워 있거늘, 내가 구슬프게 우는 것은 명(命)에 통하지 못한 짓이란 생각이 들어 곡을 그친 것일세.”

장자가 생각한 삶과 죽음은 자연의 변화과정에 불과했다. 장자는 인간의 삶은 본래 없었지만, 기(氣)가 변해서 형체가 생겨나고 형체가 변화해서 삶이 있게 된 것이며, 또다시 이 삶이 변화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생사란 다름 아닌 ‘기의 변화’ 에 불과한 것이다. 기가 모여 삶이 있게 되지만 흩어지면 죽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되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 장자의 생사관이었다.

장자는 「대종사(大宗師)」 편에서 인간의 생사를 춘하추동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실어주고(봄), 삶을 얻음에 일을 하게 되고(여름), 나이 들어 편안하게 지내고(가을), 마침내 늙어 죽음을 맞게 된다(겨울).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란 계절의 순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것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자연의 변화로 수용하면 된다는 것이 장자의 생사관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의 삶은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역시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겨울로부터 봄으로 이어져서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삶이 있게 되고 삶이 또다시 변해서 죽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난 만물은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변화되어 나온 것이요, 또한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사계절의 순환이 이어지듯,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이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이 이렇게 자연스런 과정이라면, 죽음을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워 자연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장자는 자신의 임종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지내려 하자, “나는 천지를 관곽(棺槨)으로 삼고 일월을 한 쌍의 옥으로 삼고 만물을 예물로 간주하기에 내 장례식에는 이처럼 갖추어졌거늘 무엇을 덧붙이려 하느냐!” 고 일갈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면 짐승들이 시신을 파먹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자 장자는 “땅위에 두면 까마귀나 소리개의 먹이가 되고 땅속에 묻히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된다” 고 답했다.

장자는 이처럼 인간의 죽음을 철두철미하게 자연의 변화로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추호의 간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죽음을 당할 경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보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장자는 자신의 장례를 올릴 때조차도 산천초목과 더불어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물론(齊物論)」 편의 여희(麗姬)처럼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인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떠난 채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일인지를 모른다. 사람들은 생사를 한사코 둘로 나누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꺼려하는 식으로 삶에만 치우친 감정에 빠져 자기 자신을 해친다. 그러나 장자는 죽음이란 자연의 어쩔 수 없는 흐름에 임해 마음을 철저히 비우자고 말했다. 장자처럼 자연의 변화에 편안히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명론(安命論)이자 달명론(達命論)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의 태도이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죽음과 삶 모두에서 여유를 얻게 된다.